

번뇌 대처법 오가는 번뇌 건드리지 말라

불교학연구원 '불교사상과 문화' 번뇌 특집 논길

불교의 번뇌를 고찰한 논문은 모은 책이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종석)이 최근 펴낸 '불교사상과 문화' 제4호는 불교사상 전개 속의 번뇌론의 흐름을 다뤘다.

중앙승가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미산 스님은 '초기불교의 번뇌론'을 통해 초기불교에서 번뇌 소멸에 대한 수행법을 고찰했다.

미산 스님은 논문에서 부처님이 번뇌 대한 일곱가지 대처법을 설한 <맛지나까야>의 '모든번뇌경'으로 초기경전에서 가르친 번뇌 교설과 수행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피었다.

미산 스님은 "보편, 단속하면, 총족하면, 감내하면, 피하면, 버리면, 수행하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고 부처님은 설하신다. 이 중 단속, 총족, 감내, 피함은 계행과, 흘려버림은 삼매행과, 봄은 지혜행과, 수행은 삼매행과 지혜행을 함께 닦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계행과 삼매행을 통해 많은 번뇌들을 대처할 수 있지만 탐·진·치에 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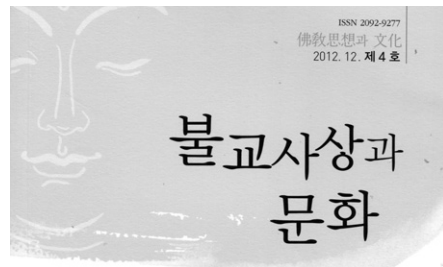
리를 둔 심리현상은 지혜 차원에서만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번뇌는 오염성, 폭류성, 집착성 등의 특징이 있어 무턱대고 번뇌를 끊고 없애야 한다고 번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며 "개별 번뇌의 특징을 잘 알아야 수행 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탐진치라는 바탕번뇌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취착(取着), 즉 집착이라는 심리현상"이라며 "집착이야 말로 갈래보다 더 강화된 상태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늘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탐진치라는 심리적 상들의 순간적 점령을 막기 위해 지혜로운 주의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즉각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며 "번뇌 대처법의 핵심은 오는 번뇌 막지 않고, 가는 번뇌 잡지 않으며, 가만히 있는 번뇌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연구원장 종석 스님은 "번뇌는 해탈과 성불을 향한 동력요인으로 시대 변천

불교 번뇌 교설 논문 등 다수 실어 미산 스님, 초기불교 대처법 설명 종석 스님, 대승불교 인식 강조



에 따라 주요 수행법이 달라지듯 번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며 "번뇌에 대한 시각은 당시 교단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종석 스님은 "초기 및 부파불교는 실천도를 정립하는 과정이었기에 업과 윤회, 해탈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든 번뇌를 철저히 분석했다"며 "이로 인해 번뇌도 10가지로 구분한 후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 구분하여 파헤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는 대승불교에 들어서 번뇌 자체를 보리 증득의 근원이자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된다"며 "중생의 근거로 얽매어 꼬달릴지, 성불을 향한 동력으로 승화시킬 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라며 번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행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교사상과 문화> 제4호에는 △번뇌론의 실상과 그 전개(종석 스님) △번뇌, 어떻게 사라지는가?-초기불교의 번뇌론(미산 스님) △구사론주 세친의 번뇌론: '구사론' 5장 '수면품' k. 5-1의 경량부 번뇌 종자설을 중심으로(박정환) △화엄불교의 번뇌론(본각 스님) △천태의 번뇌 대처의 특색(이병욱) △용수의 '중송'에서 고종의 발생과 소멸: 월경과 정목의 주석을 중심으로(남수영) △밀교경전에 나타난 번뇌론(김영덕) △초기대승과 아비달마(요하네스 브롱코스트) △ '신아시아불교사' 전15권에 대한 리뷰(김천학) △ '동아시아 구범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에 대한 리뷰(정병삼) △ 두 종교를 동시에 살아가기: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에 대한 리뷰(이전수) 등 글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신임원장에 현각 스님

3월 15일 동국대경원장 겸임...사업 탄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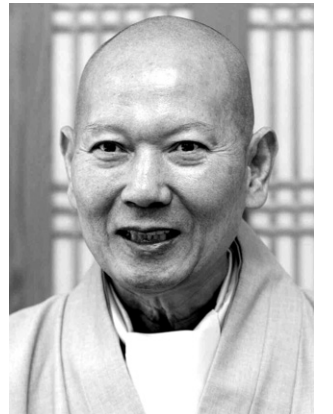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새 원장으로 동국대 명예교수 현각 스님이 임명됐다.

동국대는 3월 14일 불교학술원 원장과 동국대경원장 원장에 현각 스님을 임명했다.

불교대학장을 역임한 현각 스님은 현재 불교대학발전위원을 맡아 불교대학 일반대학원 교과과정과 편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학술원은 산하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기독교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 동국대경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인문학연구소사업단(HK), 종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 최대 학술 연구 기관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와 2026년까지 15년 동안 대장경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대각사상연구원과 용성 총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불교계 연구사업의 다각화를 이끌고 있다. 현각 스님의 임명으로 불교학술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불교융합학과 및 불교학사학사 등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각 스님은 1972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수지냈다. 현각 스님은 종보생 최초로 동국대 철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선학과 학과장 불교대학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선학회 초대 학회장, 미 허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 초빙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선학의 이해> <선어록산책> <행복에 이르는 뗏목> <선학전집>(총11권) 등을 펴냈다.

노덕현 기자

“핵기술은 달콤한 독, 10년 내 해체기술 각광”

불교생명윤리협 창립 1주년 세미나서 한 목소리

북핵과 원전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종교계가 주도해 핵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탈핵·탈원전 활동을 펼쳐온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음·박광서)는 원불교전지보은회(회장 이선중)와 함께 3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전 안전문제와 해체기술'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원자력 안전과 원전 해체기술을 연구하는 세계원전안전해체학회 창립을 앞두고 열린 준비행사다. 세미나에서는 한·중·일·독일 등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안전 및 해체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광서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100년 전 핵발전 이후 인류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인간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지만, 대신 더 위태로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핵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핵발전의 지혜로운 이용과 관리의 인류의 화두"라며 "안전의식이 결여된 핵정체는 자연으로부터 반드시 반격을 당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어두운 것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법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멈춰서야 할 때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체기술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979년 미국 스키마일 섬,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예로 들며 핵사고가 국가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원전문제에

세계원전학회 창립 준비 개최 한·중·일·독일 전문가 논의 정부 차원의 해체기술 투자 요청

서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중 원불교전지보은회 대표도 "한국은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로 원전사고와 방사능피해에서 안전하지 않다"며 "세미나가 '세계원전안전해체학회' 창립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연민 울산대 교수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교생명윤리협회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의 '국내 원전 안전현황과 급진부' △미하엘 자일러 독일 생태연구소 대표의 '독일 원전 안전문제와 극한시험' △안 브레머 독일 칼스루에공대 박사의 '독일 원전 해체기술과 해체사례' △서규열 서울대 교수의 '세계 원전 안전 해체' △황 쉬 중국 상하이자오롱대 교수의 '중국 원전 안전문제 현황과 과제' △오카모토 코지 일본 도쿄대 교수의 '일본 원전 안전문제와 해체기술의 현황과 과제' △김용수 한양대 교수

의 '국내 원전 안전점검 과제와 해체기술 조기확보 방안' 이 발표됐다.

이날 좌장으로도 나섰던 서규열 서울대 교수는 "핵 해체 기술 발전의 지속적인 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10년 간에는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해체 작업의 확산이 전망되는 만큼 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한발 내딛는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조계종 문화부, 수록재 문화재 지정 환영

조계종이 문화재청의 수록재 중요무형 문화재 지정 예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3월 15일 논평을 통해 문화재청이 삼화사 수록재와 진관사 수록재를 중요무형 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수록재의 역사성과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대장경연구, 28일 '고려교장' 학술발표회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서, 창립 20주년 기념식도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립)는 3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고려교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전, 교장종류의 체계성과 국제성(김성수 청주대 교수) △교장의 동

북아 지역의 유통(남권희 경북대 교수) 등 논문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02)926-8144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3월 열린논단, 선과 뇌과학 주제로

불교 전문 주간지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3월 21일 오후 6시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선과 뇌과학'을 주제로 3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논단에서는 뇌과학자 이성동 박사가 불교의 선체증이 뇌과학과 어

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동 박사는 정신과 전문의로 선수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과 뇌의 향연>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9기 면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이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성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개강 :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3층)
042) 255-0734~5